

행복한 금요 편지

연평해전의 추억

최방주
해군예비역 중령¹⁾

나는 매년 6월만 되면 연평해전의 추억에 빠져들곤 한다. 그간 선배님들에 고귀한 피와 땀과 열정이 서해바다에 얼룩져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고 다시 기체로 승화되어 60년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작전사에서 28년 전 2함대사로 전입하여 해·육상 및 도서 격오지에서 겪었던 동료 전우들과의 생사고락과 희노애락의 영상들이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 필름으로 남아 이 또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에 한 페이지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망망대해에서 만경창파와 싸우며 육지를 향한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하늘과 바다와 갈매기를 벗 삼아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동료 전우들을 떠올린다. 나에게는 12가지색의 화려하고 예쁜 물감이나 크레파스는 없지만... 거짓 없는 진실은 바위도 뚫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얀 종이 위에 멋진 군복을 입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진한 땀방울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35년 전 바다가 좋아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외길만을 고집해 온 우직함으로... 부대 내에서는 한 부서의 대표자라는 마음으로... 부대를 벗어나면 내가 해군의 대표자라는 마음으로... 조국을 벗어나면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자라는 책임감으로 항상 내가 주인이라는 애정으로 땀방울을 흘려 온 마음의 고향인 바다에 남고자 한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최방주 해군예비역 중령은 현재 방주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1999년 6월 연평해전 당시 서해 어느 격오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기지 대원들과 함께 트럭이 없어 손수레에 비상탄약을 싣고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빗속을 뚫고, 군수지원 함정에 적재하여 군수지원 임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승전에 일조하였던 기억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취사를 하여 지원해야 했지만 힘들어도 힘든 기색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했던 잊을 수 없는 취사병들...

한번은 취사병 중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제일 선임병이 늦은 밤에 내 방으로 찾아와서 내일부터 마지막 전역 휴가를 가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가지 않겠다고 하여 평소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생활해왔던 생각에 깜짝 놀라서 무슨 고민이나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취사병중 후임병사 홀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 휴가를 그 후임병에게 대신 주면 안 되겠느냐고 상담해와서 나는 순간 저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몇일만 지나면 전역인데?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과 후임자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취사병에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꽃보다 아름답고, 바다보다 넓은 가슴을 지닌 그 전우를 가끔 떠올릴 때면 지금도 나에 가슴이 시뻘건 용광로처럼 뜨거워진다.

그리고 당시 연평해전 승전 후 충남 천안의 어느 시골농부가 수박 한 트럭을 부대로 직접 싣고 와서 해군장병들 수고 많다며 나눠 먹으라고 했을 때 코끝에서 찡하게 전해져오는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운 희열과 전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섬으로 놀러온 관광객들까지도 우리 해군들을 만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하늘로 치켜 올리며 해군이 최고 멋져부러~라고 하는 사람, 양손을 하늘높이 좌우로 흔들며 헤어질 가족을 만난 듯 반가움을 표시하는 사람, 무엇이 먹고 싶냐며 애인에게 대하듯 막무가내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 마을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과자, 음료수 등을 양손에 잔뜩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우리 대원들은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이리 저리 피해서 도망 다니는 해프닝이 연출되면 성의를 무시한다며 버럭 화를 내는 사람 등...

그 뜨거웠던 격려와 요원에 불길처럼 타올랐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나 개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고 있는 행복한 공인으로서 부대를 위하고, 해군을 위하고, 사랑하는 하나뿐인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자갈밭, 가시덤불을 헤치며, 쓰디쓴 인내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무나 큰 위험들이 도처에서 나를 위협할지라도 이 한목숨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

23전 23승이라는 기적과 같은 전승의 신화를 창조한 해전의 명장 성웅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로 나의 위치에서 나와 해군과 조국을 위한 희망이라는 한 알의 씨앗을 심고, 짜디짠 땀방울을 흘리며 사랑하는 나의 아들 같은 전우들과 함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불굴의 신념으로 언제 어디서 적과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다음 승전을 뇌리에 그리며 오늘도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